

정부, 30대 일류브랜드 적극 육성

지식경제부는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해 수처리, LED, 신소재, 바이오의약 등을 30대 일류브랜드로 적극 육성해나갈 방침이다.

지경부는 4월8일 발표한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2009년도 추진계획>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신 성장동력은 3대 분야, 17개 산업으로 녹색기술 분야에는 신·재생 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수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등이 포함돼 있으며 첨단융합 분야에는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식품산업이 선정됐다.

세계 일류상품 가운데 자체 브랜드 제품을 대상으로 시장점유율, 수출실적, 해외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베스트 브랜드> 제품을 선정하고 인증 마크를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해외홍보와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해외전시회에 프리미엄 코리아관을 설치하는 등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옵션식 지원제도를 도입해 KOTRA가 주관하는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2007년부터 운영해온 PM(Product Manager) 제도를 강화해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일대일 맞춤형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5월에는 세계 일류상품의 신규 선정계획을 발표하고 2009년부터 신 성장동력산업 등 미래 유망산업 분야에서 많은 일류상품이 발굴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고우리 기자>

<화학저널 2009/04/09>